

두모系 古地名의 起源

남 영 우*

The Origin of the Ancient Place Name, *Dumo*

Young-Woo Nam*

요약 : 본 연구는 두모계의 古地名이 언제부터 한민족과 함께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지니는 어원적 의미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두모계의 屬地名과 種地名을 분석한 결과, 고대 사회에서는 地名과 人名간에 交界領域이 있었으며, 고구려와 백제의 시조인 주몽과 그의 아들 비류와 온조는 본래 人名이 아니라 地名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몽은 두모계 지명에서 비롯된 人名으로 간주되며, 온조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도읍지를 두머에 천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두모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천이 흐르는 온화한 주거 공간을 의미하며, 이같은 한민족 특유의 立地術은 고대에 이른바 東夷文化圈에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어 : 두모, 두머, 地名, 古地名, 屬地名, 種地名, 立地術

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grasp the etimological meaning of the ancient place name *Dumo*, and to identify when the ancient place names in *Dumo* system started to be used by Korean people. The results of analysis of generic toponym and specific toponym of the ancient place names in *Dumo* system are as follow :

Firstly, Chumong, the name of the founder of the Koguryŏ Dynasty, and his two sons Biryu, the founder of the kingdom Biryu-Paekche, and Oncho, the founder of the kingdom Paekche, are presumed to originate from place name, not from person's name. Particularly, the name of Chumong is considered to be a person's name which comes from *Dumo* system.

Oncho, who claimed to be a son of Chumong, a person of north-Puyŏ, transferred the capital of his kingdom to the present site of *Dumŏ* in Chunggung-dong, Hanam city in present, which is thought to be an early capital of Paekche or a part of it.

Secondly, the word of *Dumo* means a warm space which is surrounded by mountains, protected from wind, endowed with river which provided with water. This kind of spatial cognition gradually evolved as the prototypical locational artifice which was diffused to Manchuria and Japan, and is believed to be introduced to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 *Dumo*, *Dumŏ*, place name, old place name, generic toponym, specific toponym, locational artifice.

1. 序 論

地名은 본래 토지에 부여되는 이름이므로 토지의 자연·인문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 보통이며 문화현상의 일종으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지명은 인간이 습득한 언어형식의 하나로 주관성과 객관성이 교차하는 역동적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池憲英, 1942). 그러나 지명은 시대의 추이에 따라 속

성과 공간적 변화를 수반한다.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 지명의 정체를 파헤쳐 본연의 모습을 규명해 낼 수 있다면, 지명은 시간과 장소를 설명해 주는 열쇠로서 오늘을 사는 현대인 앞에 새롭게 다가설 것이다.

지명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땅을 대변하고 역사를 설명해 주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本間, 1976; 千葉, 1994). 지명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古地

* 高麗大學校 地理教育科 教授(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

名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필자는 상고시대에 명명된 것으로 판단되는 고지명 가운데 두모계 지명에 주목하여 그것의 음운체계와 공간적 분포에 관하여 고찰한 바 있다(남영우, 1996). 선행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고문헌을 참고하여 「두모」가 등근 형태의 원을 뜻하는 形態語에서 비롯된 지명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또한 두모계 지명은 음운상의 변화와 한자의 借字過程에서 豆毛·斗武·都馬·東幕¹⁾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었으며, 공간적으로 전국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밖에도 두모계 지명은 耽·耽牟·東音·擔·都慕·鄒牟·投馬·出雲·吾妻 등과 같이 다양하게 표기된다.

상고시대의 한민족은 고유의 문자가 없었으므로 중국의 한자를 빌어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한자 및 한문이 언제부터 우리 민족에 의해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불교의 전래시기보다 빨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백성에게는 한문의 대중화가 불교전래보다 늦어졌으나, 위정자들은 이미 자신의 의지나 감정을 한문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人名·地名·官職名·國名 등의 고유명사는 原音에 가까운 한자의 音訓만을 빌어 표기하였다. 삼국사기에 지명이 한민족의 고유어와 漢語로 병기된 것은 그 때문이다.

한자의 유입이 불교의 전래보다 빨랐을 것이라는 추정은 B.C. 1세기 漢武帝 때에 다수의 漢人들이 한반도에 유입되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한반도의 지배계급은 그들로부터 한자를 배워 기록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한자의 音訓借用法은 대체로 3~4세기경에 완성되었으며, 신라는 시행착오를 거쳐 6세기경에 한자음훈의 自國語화로 이두를 만들었다(金思樺, 1979 a). 또한 지명은 8세기 중엽에 이르러 唐式의 한문으로 개칭되었고 현지 주민들의 口傳過程에서 와전되거나 변형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고지명 「두모」가 언제부터 한민족과 함께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지니는 어원적 의미는 무엇인가에 관하여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고문헌²⁾ 및 각종 지도를 이용하였고, 屬地名(generic toponym)과 種地名(specific toponym)의 구분 없이 모든 두모계 지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Burrill, 1956).

2. 地名과 人名의 交界領域

혈연적 또는 지연적 인간집단의 명칭을 영어권에서는 folk name이라 하고 독일어권에서는 Völkernamen이라 한다. 한국어로는 이것의 對應語로 민족학의 관점에서 民族名이라고 해도 좋고, 더 범위를 좁혀 部族名 또는 氏族名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범위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人族名이라고 불러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한편 개인의 호칭은 姓(氏)과 이름으로 구성되므로 姓名 또는 氏名이라 부른다. 원래 姓과 氏는 신분의 귀천을 따지거나 혼인여부를 분별하기 위해 존재했었지만, 중국의 周나라 이후에는 이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다(林雅子, 1996). 그러므로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의 고대국가에서는 姓과 氏의 구별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辛兌鉉, 1940).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삼국사기의 기록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

姓高氏(고구려 본기 제1)

故以扶餘爲氏(백제 본기 제1)

姓朴氏……以朴爲姓(신라 본기 제1)

우리 나라의 경우 姓이 의미하는 바는 출생지 또는 출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조선시대의 字典인 『大東韻府群玉』에는 “氏, 人所生也”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곧 “姓, 人之所生也”라는 뜻이 된다. 백제왕의 姓이 부여인 것은 그들의 출신지가 부여인 까닭이다. 삼국사기 연개소문전에

蓋蘇文(或云蓋金) 姓泉氏

自云生水中 以惑衆

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姓이 출생지를 뜻한다는 증거가 된다. 이와는 달리 姓氏가 출생지가 아니라 출신지를 의미하는 경우도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삼국사기 強首傳을 보면, 신라왕이 강수에게 이름을 물은 데 대하여 그는 “臣本任那加良人 名字頭”라고 대답하였다. 이 대목에서 성씨는 본래 출생지 또는 출신지를 뜻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성씨가 일정한 영역의 명칭으로 부여된 경우를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

다. 즉 삼국사기 신라본기(유리왕 9년)에

春 改六部之名 仍賜姓
 楊山部爲梁部 姓李
 高墟部爲沙梁部 姓崔

 明活部爲習比部 姓薛

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왕이 賜姓을 하면서 개인에게 성씨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6부에 하나씩의 성씨를 부여했다는 뜻이다. 이 6姓은 각각의 6부를 구별하기 위한 공간적 영역의 명칭에 다름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6부의 명칭에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사이에 상이한 점이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삼국사기에는 沙梁部를 최씨, 本彼部를 정씨로 기록되어 있으나 삼국유사(권1, 혁거세)에는 그 반대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삼국사기에는 최치원을 沙梁部人으로, 또 삼국유사에는 그를 本彼部人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성씨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³⁾. 결국 그 당시의 성씨는 영역을 내포하고 있었으므로 本貫이 부수적으로 따라다녔다고 생각할 수 있다(辛兌鉉, 1940).

서양사회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일본과 달리 이름을 앞에 놓고 성씨를 뒤에 붙이므로 姓名이 아니라 名姓으로 호칭하는 관행이 있다. 물론 형가리와 같은 예외적인 사회집단도 존재하지만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가령 James Cook이라는 서양인의 人名에서 James는 세례명(Christian name) 또는 이름(given name, first name)이며, Cook은 성씨(last name)로 가족명에 해당한다. 또한 미국·영국·독일의 경우는 세례명 이외에도 Richard Joel Russell에서 Joel과 같이 中間名(middle name)을 부여하는 관습이 있다.

그러나 한자문화권의 경우는 서양과 달리 성씨를 앞에 놓는 관행이 있다. 일반적으로 人名(personal name)은 個人名(individual name)과 集團名(group name)으로 구분되는데, 古代社會에서는 집단명에 해당하는 부족 또는 종족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松村, 1930). 오늘날 한국인의 인명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중국식 성씨가 대부분이지만, 아직까지 고대부터 내려오는 재래식 성씨가 일부 남아 있다. 『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조선시

대만 하더라도 남공·선우·동방·사공 등의 復姓이 36개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재래식 성씨가 중국식으로 바뀐 후에도 얼마 동안은 성씨가 공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나라의 영향을 받은 고대 일본에서는 가족명으로서의 성씨를 苗字(名字)라 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명에서 연유한 것들이다(楳村, 1978, 1992). 이러한 관습이 중세 이전까지 지속되어 일본에서는 부자간 또는 형제간일지라도 주거지(혹은 출신지)가 다르면 苗字도 상이하였다. 자신의 苗字를 변경함이 없이 타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 것은 중세 이후부터의 일이다.

성씨가 지명에서 유래된 것은 한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앵글로색슨 사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Potter, 1950). 구체적으로 L. G. Pine(1965)에 의하면 앵글로색슨 사회의 성씨 가운데 50% 이상이 지명에서 유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는 반대로 지명이 성씨로부터 유래된 경우도 간혹 찾아 볼 수 있다(柳田, 1937, pp.33~54). 아무튼 고대사회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성씨와 지명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두모계 지명에 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3. 두모계 地名과 人名

1) 朱蒙

우리 나라에는 중국식 성씨가 전래되기 이전에 출생지 또는 출신지의 지명을 성씨로 채택하던 한국 고유의 재래식 성씨가 있었다. 고대국가의 성씨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삼국사기와 같은 史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삼국사기의 高句麗本紀와 百濟本紀에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는데, 고구려본기(제1)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始祖東明聖王 姓高氏 謂朱蒙 一云鄒牟

위의 기록 중 東明은 「서울」의 古語인 신별의 이두식 표기이거나 朱蒙의 同音同語의 借字이며, 鄒牟는 朱蒙의 異表記에 다름 아니다. 일본측의 기록 『新撰姓氏錄』의 嵯峨天皇(弘仁 5年 甲午成)과 『續日本記』의 桓武天皇(延曆 16年 丁丑成)에 백제의 시조 비류와 온조가 都慕王인 朱蒙을 시조로 한다

고 기록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역사서와 『日本書紀』의 天智紀 등에 기록된 都慕·朱蒙·仲牟·衆牟·鄒牟 등이 모두 주몽을 표기하기 위한 借字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魏書』의 列傳(제88)에 주몽의 출신지인 북부여를 본래 예맥의 땅이며 豆莫婁國이라 하였는데, 이는 결국 두모[豆莫]가 그의 출신지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豆莫婁國 在勿吉國北千里 去洛六千里
舊北夫餘也
在失韋之東 東之於海 方二千里 ……………
或言本濊貊之地也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필자는 上記한 일련의 借音借字를 두모계 지명으로 간주하려고 한다.

古代의 성씨가 출생지 또는 출신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삼국사기에 주몽의 성씨를 高氏라 한 것은 고구려 건국 후의 일이며, 그의 아버지 解慕漱가 「고모수」의 이두식 표기이므로 그로부터 연유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주몽의 장남 沸流 역시 삼국사기의 毛屯谷이라는 지명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毛屯谷을 『魏書』의 普述水에 근거하여 지금의 渾江(佳江)에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강을 고구려인들은 沸流水라 불렀고 광개토태왕비에도 沸流谷 云云하는 대목이 보인다. 비류라는 古代語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이 지명은 함경남도 용흥강 지류에도 존재한다. 비류가 개인의 人名이 아님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은 그 밖에도 또 있다.

王見沸流水中 有菜葉逐流下……………至沸流國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1)
沸流國王松讓者 禮以後先開國爭……………
(제왕운기 고구려기)
王以貪暴廢沸流部長 仇都逸……………
(동국사략 권 1)
時沸流水上 松壤國王 以國來降……………
(동국사략 권 1)

한편 주몽의 차남 溫祚는 백제의 시조로 알려져 있으나, 이것 역시 人名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온조의 대를 이은 多婁王·己婁王·蓋婁王과 연관시킬 때에 공통적 요소를 전혀 발견할 수 없고, 解夫婁·解愛婁·牟頭婁·解婁 등의 부여

계 人名과도 婁자 돌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다. 온조의 同一語가 확실한 殷祚·恩祖·鷹準은 사실상 *ončo/*inčo의 借音으로 추정되며, 百濟와 十濟에서 「百」과 「十」은 訓借字이고 「濟」는 音借字로 볼 때 이들 역시 *ončo를 표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都守熙, 1991). 그러므로 온조는 시조의 人名이 아니라 원래는 한반도 북쪽 만주 어느 지방의 地名 내지는 部族名이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필자는 주몽과 그의 두 아들 비류와 온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즉 기원전 북부여의 「두모」출신인 주몽이 그곳을 탈출하여 졸본지방에 이르러 비류에서 장남을 낳고 온조에서 차남을 낳았다. 온조는 형과 함께 남하하여 한반도의 한강 유역에 이르러 백제를 건국하였다. 백제의 시조가 된 온조는 그의 출신지명(또는 출생지명)을 따서 溫祚國이라 국호를 정하였으나, 각종 史書에는 *ončo의 音借字過程에서 溫祚·殷祚·恩祚·鷹準 또는 訓借字過程에서 百濟·十濟 등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3父子간에 이름이 모두 제각각인 것은 마치 고대 일본에서 출신지가 다르면 가족간에도 苗字를 달리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몽에 관한 기존의 해석은 다양하다. 먼저 「주몽」을 활 잘 쏘는 사람이란 뜻으로 풀이하는 경우는 삼국사기(고구려본기 제1)에

……………自作弓矢射之 百發百中 夫餘俗語 善射爲朱蒙 故以名云

이라는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주몽」을 제사장의 뜻으로 풀이하는 학설이 있다(光岡, 1982). 이 학설은 제사장이 의식을 관장하면서 춤을 추는데 춤의 達人을 몽고어로 chumu, 시베리아어로 shamu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주몽」을 神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하는 경우도 있다(金思燁, 1979 b, p.64). 즉 神의 고대어 *kʷ-mi에서 k음이 t 또는 č音으로 전이되어 čʷ-mi 또는 tʷ-mi로 바뀌었고, 이들은 한자로 借音되면서 朱蒙·祇昧 혹은 祇摩(신라 6대왕)·鄒牟 등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은 나름대로의 의미와 타당성을 지니고 있겠지만, 필자는 人名이 地名과 交界領域을 공유한다는 본 연구의 취지에 더 높은 가능성

을 부여하고 싶다.

2) 溫祚

삼국사기(권 23)에 의하면, 비류와 온조는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琉璃)이 태자가 되자 후일이 두려워 열명의 신하를 데리고 한강 유역까지 남하한 것으로 판단된다(李鍾旭, 1989). 이와는 달리 한강 유역에 이미 뿌리를 내렸던 10개의 토착세력집단을 규합한 十濟가 더욱 성장하여 百濟로 발전했다고 추정하는 학설도 있다(盧重國, 1987).

백제 초기의 도읍지에 관해서는 학설이 분분하지만, 漢山의 負兒岳에 올라 도읍지가 될만한 장소를 물색한 사실을 놓고 동국여지승람(권 1) 등의 문헌과 몇몇의 학자들은 부아악을 북한산의 인수봉이나 삼각산으로 비정한 바 있다. 이것은 負兒라는 語意에 착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古地名을 분석함에 있어서 한자는 音借나 訓借에 의한 이두식 표기로 보아야 타당하므로 부아악을 마치 아기를 업고 있는 듯한 형태의 산에서 실마리를 찾아서는 부적절하다. 또한 負兒라는 지명은 북한산 이외에도 서울(응봉), 용인, 개풍 등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지역에서는 지명변천에 따라 소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부아악을 북한산에 한정시켜 비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아무튼 온조는 임시로 정했던 하북위례성으로부터 전략상 유리한 하남위례성으로 도읍을 옮기기로 결정하여 온조왕 13년(B.C. 6) 7월 한산 아래에 목책을 세우고 하북위례성의 백성을 이주시켰으며, 그 이듬해 1월에 정식으로 천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백제의 새로운 도읍지 혹은 그 일부가 현재의 하남시 춘궁동일 것으로 추정하고 싶으며, 그 이유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제 1)를 인용하면서 설명해 보겠다.

……………改號百濟
其世系與高句麗同出夫餘
故以夫餘爲氏

즉 주몽의 아들인 온조는 자신이 북부여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그가 천도한 장소를 아버지의 人名인 동시에 출신지명을 본따서 두모라 명명한 것으로 추정된다⁴⁾. 춘궁동에는 두모계 지명인 「두머」

가 약 2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존속되어 왔다. 고구려와 동일계통임을 알리기 위해 성씨를 부여로 정한 백제의 역대 왕들은 온조왕 이후에도 주몽에 대한 경외심에서 변함이 없었던 것 같다. 즉 제2대 다루왕은 고구려 시조 東明王廟에 배알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는데, 이는 백제 왕실에서 온조의 어머니 召西奴와 주몽의 사당을 지어 제사 올렸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제6대 구수왕은 여름 날씨가 매우 가물어 동명왕묘에 기도하니 비가 내렸다는 것으로 보아 역대왕들이 주몽과 온조의 死後에도 백제에 축복을 내려주는 존재로서 온조의 부모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고구려의 전통은 백제 뿐만 아니라 고구려 멸망 후 발해까지 지속된 것 같다. 현재 만주의 吉林省 敦化縣에 있는 六頂山은 발해의 시조 大祚榮이 건국의 근거지로 삼은 곳이다(光岡, 1982). 그는 말갈의 수령 출신으로 일찍이 고구려에 들어와 고구려 사람으로 성장하여 장수의 직위까지 올랐던 인물이다(송기호, 1989). 그리고 六頂山은 1949년까지의 지명이 東牟山으로 불렸으며, 발해 3대 文王의 딸 貞惠公主가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東牟는 두모계 지명의 하나로서 평안북도 후창군 후창면의 東馬와 동일한 계열이다. 두모계의 지명이 東牟로 借字된 경우는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東牟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의 『梁書』 백제조(권 54, 열전 48)에 기록된 다음의 내용에 주목해 보기로 하자.

號所治城曰固麻 謂曰日擔魯 如中國之言郡縣也
其國有二十二擔魯 皆以子弟宗族分據之

즉 擔魯는 중국의 군현과 같은 지방통치제도의 행정단위이므로, 擔魯制란 主城(漢城)이 22개의 城을 관할하기 위해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통치체제를 의미한다(朴賢淑, 1993). 여기서 擔魯는 tʌm-no/tam-na의 중국식 표기로 삼국사기와 고려사의 耽羅·耽牟羅와 동일한 音借字로 간주된다. 「擔」의 tʌm은 유음화하여 tʌ-mu가 되고, 「魯」의 no는 흔히 奴·奈·那·內·惱·盧·難 등으로 音借字되는 것으로서, 나라·누리의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n音系の 사례는 고구려의 消奴部·順奴部, 삼한의 莫盧國·狗盧國·戶路國, 일본의 末盧國·姐奴國 등이 있다. 따라서 백제의 擔魯는 城邑

國家 내지 城의 관할구역으로 풀이되므로 (千寬宇, 1977, p.248). 이는 지리학적으로 중심지(central place)와 배후지(hinterland)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담로제의 주성에 해당되는 한성의 지명이 두모계 지명이라는 사실은 「攢」의 의미를 시사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고의 초점을 다시 춘궁동의 「두머」에 맞춰보기로 하겠다. 춘궁동의 古地名이 각종 역사서에는 위례성 또는 한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것은 首都로서의 기반시설이 완성된 후에 명명된 雅稱이거나 공식명칭이었을 것이다. 특히 위례성은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함락된 후에는 단지 일개 지방의 지명으로 전락하였다(今西, 1912).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와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백제의 2차 도읍지 하남위례성은 약 480년간 漢城이라 불리웠던 것 같다. 결국 온조 일행에 의해 개척된 「두머」는 천도 후에도 백성들간에 회자되었을 뿐이며 史書에 공식적인 지명으로 기록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일반적으로 古代人은 신천지를 개척하여 정착하면 吉祥語·신앙대상·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지명으로 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楢村, 1978 ; 金思燁, 1979 b). 이러한 지명은 文化傳播의 유형처럼 확대전파(expansion diffusion)되거나 이전전파(relocation diffusion)되어 확산해 나아가는 경우가 보통이다(Jordan & Rowntree, 1979). 특히 이전전파는 국내는 물론 동양문화권이라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데, 두모계 지명은 고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하면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지명은 민족과 함께 이동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金澤, 1978, p.90). 『魏志』의 倭人傳에 나오는 投馬를 비롯하여 일본의 『古書記』 및 『出雲國風土記』에 나오는 出雲은 한반도에서 전파된 지명일 것으로 생각된다. 出雲은 『和名抄』의 訓에 以豆毛라 하였으므로 두모계 지명임이 분명하다(吉崎, 1988, p.121).

남한산(청량산)·객산·이성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의 「두머」는 오늘날 공간적 범위가 축소되어 하남시 상사창동과 하사창동 사이에 소규모의 취락으로 남아 있다. 현지 주민들은 두머리·두머골·두머 마을 등으로 부른다. 범위의 축소는 한성이 고구려군에 함락된 개로왕 21년부터 도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취락이 쇠퇴하면서 발생한

현상일 것이다. 아무튼 「두머」는 그로부터 世人의 관심에서 멀어져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져 갔지만, 유기체적 속성을 지닌 이 지명은 우여곡절 끝에 주민들에 의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조선시대에 발간된 지도에는 이곳이 古邑 또는 古馬(고말)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하남 위례성으로 천도하여 백여년이 흘러 제 4대 개루왕이 즉위하였다. 개루왕이 즉위한 뒤에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별로 주목할만한 사건이 아닌 듯한 데에도 삼국사기 열전(제8)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蓋婁王聞之 召都彌與語曰 凡婦人之德……………

즉 개루왕이 도미의 아내가 얼굴이 아름답고 절개가 곧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를 유혹하려다 거절당한 사건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제1)에는 개루왕이 품성이 공순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염집 아낙을 탐낸 것으로 보아 그녀의 미색이 대단했던 모양이다. 화가 난 개루왕이 그녀를 강간하려고 하자 도미 부인은 월경을 핑계 삼아 겨우 모면하였다. 그녀는 왕으로부터 간신히 도망하여 강어귀의 도미나루에 이르렀으나 건너갈 수 없자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던 중 한 척의 배가 나타나 그것을 타고 남편과 함께 고구려로 도망가서 살았다는 줄거리이다.

이상과 같은 줄거리에서 필자는 「도미」라는 이름과 나루터 지명에 주목하고 싶다. 都彌라 借字된 지명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남영우, 1996) 두모계 지명에서 $m\lambda > m\lambda j > mi$ 의 형식으로 쉽게 전음화된다. 또한 도미 부인이 배를 타기 위해 찾아간 나루터가 渡迷津이라면, 이는 필경 도미 부인에 얽힌 전설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배우리, 1992). 여기서 도미 부인이란 도미의 아내라는 뜻이며, 도미는 남편의 이름이라기 보다는 도미 출신이거나 도미에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도미 부부가 춘궁동(두머)에서 배를 타고 고구려 또는 인접국가로 도망치기 위해서는 우선 한강변 나루터로 가야 한다. 그 나루터가 도미나루라는 것인데(한글학회, 1985, p.206), 이곳은 대동여지도 및 郡縣圖 등의 고지도에는 斗迷·渡迷 등으로 주기되어 있으며, 현재는 하남시 배알미동에 해당한다. 그녀가 남편을 만났다고 기록된 泉城島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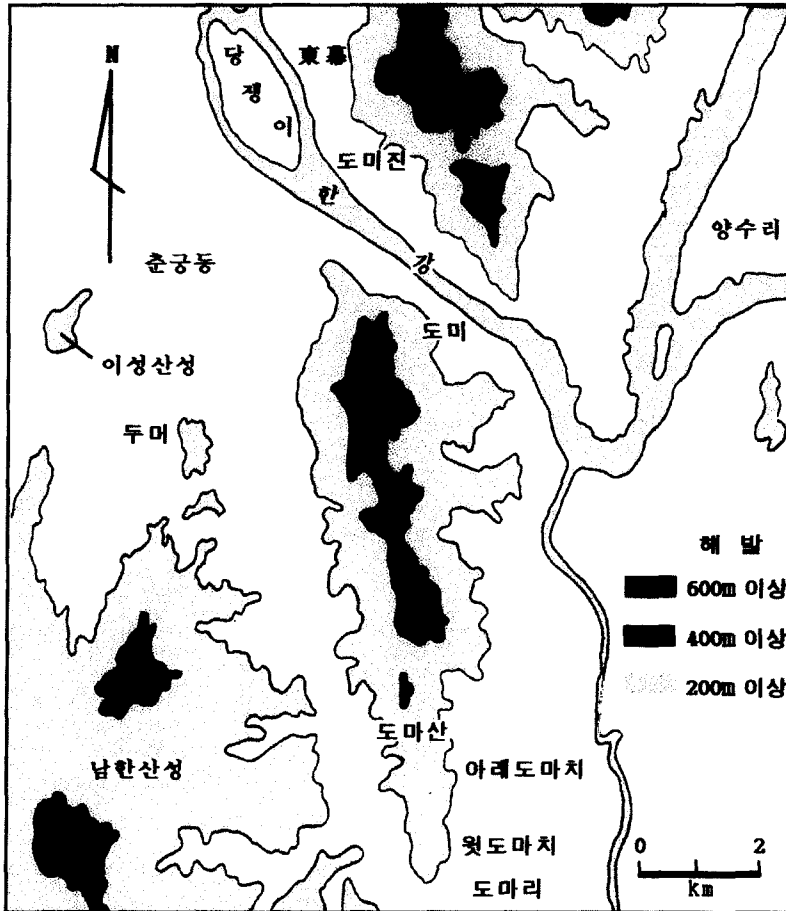


그림 1. 한강유역 두모계 지명의 분포
 구한말 1:5만 지형도 참조(남영우 편저, 1997)

금의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으나, 이 일대에 두모계 지명이 많이 분포하는 것은 특이할만 하다(그림 1 및 그림 2 a 참조). 즉 춘궁동 동쪽의 刀馬山·刀馬峙·刀馬里·윗도마치·아랫도마치 등이 그것인데, 이들 지명의 屬地名은 모두 두모계에 속한다. 이처럼 하남시에서 광주군에 이르는 한강 주변에 두모계 지명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다.

4. 「두모」의 語源的 意味

본 연구에서는 두모계 지명의 기원을 각종 史料에 근거하여 부여 혹은 고구려까지 소급해 보았다.

두모계 지명전파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물론 만주·몽골·중국·일본 등의 고문헌과 연구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원전 북부여의 언어를 파악하기 위하여 몽고어에 관한 이해도 필요하겠으나, 고대 몽고어는 13세기 이전에 이미 소멸되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 오는 것이 없는 것 같다. 또한 통구스어는 시베리아 동부지방·흑룡강유역·만주 등지에 걸친 주민들의 언어이지만, 이들 통구스어족의 언어는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이르러서야 문자로 기록되었으므로 그 발달사의 파악이 불가능하다. 단지 만주어 만큼은 청나라가 건국되면서부터 문자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보다 앞선 시기에 금나라를 건국한 여진족이 그들의 문자를 만든 바 있다. 그리고 터키어의 오래된 자

료로는 룬문자(Runic scrip)로 쓰여진 금석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대략 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金思燁, 1979 b).

두모계 지명의 어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原始基本語 가운데 「두」에 해당하는 d 또는 t音系와 「모」에 해당하는 m音系에 초점을 맞춰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t(d)音系에 대하여 살펴보면, 알타이어 계통의 만주어와 일본어에서 tu-wa: 불(만주), ta-pum-pi: 불을 지피다(만주), たきぎ: 장작(일본), たく: 끓이다(일본), あたたかい: 따뜻하다(일본), てる: 비추다(일본), あつい: 덥다(일본) 등의 기본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ta-sa ta: 따뜻하다, tʰ-hi-ta: 덥히다, ta-li-ta: 끓이다, ti-ta: 데다, tɔj-ta: 화상이다, toj-ta: 되다, ti-kipt-ta: 뜨겁다, tɔ-ta: 덥다, ta: 땅, ti-ru: 들 등과 같이 해야될 수 없이 많다. 이들 대부분은 형용사에 해당하는 기본어이다.

한국의 고대어 가운데 t音系의 명사를 찾아보면, ta-ra/tsu-ru: 들(평야), ta-ra/to-ro: 취락·산·읍, tu-ru/to-ri/tu-ni: 圃 등이 있다. 이것들은 몽고어의 tu-ra와 비교되는 고대어이다(李炳鎡, 1988). 이상에서 열거한 기본어에는 두가지 공통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형용사의 경우는 대체로 불이나 태양과 관련한 따뜻하다는 의미, 명사의 경우는 토지·산·취락과 관련한 땅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다음으로 「모」에 해당하는 m音系에 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알타이어 계통의 m음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된 의미는 물[水]과 관련한 기본어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만주어의 mu-ke와 통구스어 및 터키어의 mu가 모두 물을 뜻하는 단어이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mil: 물, ma: 마(장마), mu-t: 물(육지), u-mil: 우물, mot: 연못, mi-na-li: 미나리, mi-či-ke: 무지개 등을 비롯하여 ma-si-ta: 마시다, mʰ-lʰ-ta: 마르다, malk-ta: 맑다, man-hʰ-ta: (물이) 많다, mu-li-ta: 무르다, mulk-ta: 몹다, mɔ-kim-ta: 머금다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본어의 경우는 みず: 물, うみ: 바다, あま: 비·바다, まぜる: 섞다, いずみ: 샘, むす: 증발 등이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m음계는 파생어로 활용되면서 mu, mi, moj, ma, mo 등으로 전음되며 대부분 물

과 관련한 것들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m음계 가운데 한국어와 일본어가 대응하는 마을-무라, 마루-무로, 피-야마, 물-미즈 등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古語라 하여 모두 古代語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고어에는 중세어 뿐만 아니라 근세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는 고대어가 아닌 중세어로 판단된다⁵⁾.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에서 물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 m음계이지만 n음계도 있다. 한국어의 nai: 내[川], na-lak: 나락, nun: 눈[雪], nok-ta: 녹다 등을 비롯하여 일본어의 ながる: 흐르다, ぬま: 늪·연못, のむ: 마시다, ぬるい: 따뜻하다, のり: 김 등이 그것이다. 또한 통구스어의 na-mu와 몽고어의 nam은 바다를 뜻하고, 몽고어의 na-gor와 터키어의 na-hor는 내[川]을 뜻하는 단어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t음계와 m음계를 합성해 보면, 들·취락·산·읍 또는 태양·따뜻함이란 의미와 물이란 의미의 합성이 되므로 「두모」의 개략적 의미가 어느 정도는 유추된다. 즉 산이 둘러쳐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하천이 흐르는 따뜻한 공간, 그곳에 자리잡은 취락의 이미지가 성립된다. 우리의 고대민족인 濊貊族은 유목 통구스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을 무렵에 몽골고원 또는 북만주에서 불어오는 황사와 차가운 강풍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조한 자연환경에 적응해야만 하였다. 이같은 우리의 고대민족은 地形順화와 氣候順화의 과정에서 특유의 터잡기 지혜를 터득했을 것이며, 그것은 주택입지에서 취락입지로 발전되어 나아 갔을 것이다. 古氣候學的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원류는 북쪽의 한랭해지는 기후를 피하여 기존의 주민을 구축하거나 동화시키면서 한반도에 정착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김정배, 1973 ; 김원룡, 1976). 결과적으로 「따뜻한 남쪽 땅」이라는 한민족의 原型的 思考觀念은 「두모」라 요약되는 立地術을 잉태하였고, 이러한 취락입지법이 고대민족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가 큐슈·나라·쿄토에도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세울 수 있다. 필자는 우리 나라 고대국가의 도읍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취락이 盆地立地인 까닭을 「두모」와 관련지어 생각하고 싶다. 「두모」는 중세와 근세를 거치면서 한국인의 취락입지사상으

적으로 tu-m^h는 지형상 三方山으로 둘러싸이고 그 앞쪽에 하천이나 바다에 면한 장소를 뜻한다는 것이다⁶⁾.

이에 대하여 鏡味(1964)는 出雲의 訓인 以豆毛가 신성한 토지를 의미한다고 풀이하였고, 池田은 일본 出雲郷의 지형으로부터 유추하여 두모를 「端」 또는 「巖面」으로 풀이하여 절벽에 면해 있는 장소로 해석하였다(楠原 등, 1981, p.48). 또한 지명의 지형별 根源語(primitive word)를 재구성한 千素英(1990, p.641)은 tu-ra를 山 혹은 高의 의미로, ta-mu를 圓形을 이루는 지형으로 간주하였다.

중국으로부터 풍수지리설이 유입되기 전에 건설된 삼국시대의 도읍지는 고구려의 환도성·평양성과 백제의 위례성·웅진성·사비성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하천을 끼고 산으로 둘러싸인 背山臨水의 분지형 지형이다. 그와 같은 도읍지의 입지형태는 奈良분지의 明日香·平城京과 京都분지의 長岡京·平安京 등의 古代日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6~7세기 推古朝의 도읍지였던 大和(飛鳥지방)의 明日香은 하남위례성으로 추정되는 두머와 지형적으로 매우 흡사하다. 이와 같이 지명은 인간에 의해 전파되는 문화적 실체이므로 장소·시간·언어가 상이할지라도 약간의 변화를 수반하면서 根源語를 유지하는 속성이 있다(Gelling, 1976).

「두모」는 鏡味(1964)의 주장처럼 한민족을 비롯한 東夷族에게는 마을을 만들고 도읍지를 정할만한 신성한 땅이었다. 이같은 생각은 조선 개국 초기의 首都立地에도 적용되었던 것 같다. 즉 개국 초기 일시 정도하려고 시도했던 계룡산 남쪽의 신도안이 두모계 지명이었다. 현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두계」로 지명이 바뀌었으나, 본래는 두마천이 흐르는 「두마」라는 지명이었다(그림 2 b 참조). 그 당시 도읍지의 입지기준은 풍수설에 의존하는 바가 컸으나, 결과적으로는 고대국가와 중세 국가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5. 結 論

본 연구는 고대사회에서 가족간에도 출신지가 다르면 성씨도 상이한 경우가 많았던 것에 착안하여 占地名 「두모」가 언제부터 한민족과 함께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지닌 의미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음운상의 변화로 다양하게 표기된 두모계 지명은 한민족의 住居立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여계 출신으로 고구려와 백제를 건국한 朱蒙과 그의 아들 沸流와 溫祚는 人名이 아니라 본래는 地名에서 비롯된 이름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고대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명과 인명의 交界領域에서 파악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都慕·仲牟·衆牟·鄒牟 등으로 借字되는 주몽은 두모계 지명에서 비롯된 人名으로 간주된다.

2. 백제의 시조 온조는 자신이 북부여 출신인 주몽의 아들이라는 점을 의식하여 건국 초기의 도읍지 혹은 그 일부를 지금의 하남시 춘궁동으로 지정되는 「두머」로 천도한 것으로 사료된다. 삼국사기(열전)에 등장하는 도미부인을 비롯하여 그녀와 관련된 듯한 도미나루·도마리·도마산·도마치 등은 하남위례성에서 연유한 지명일 것으로 판단된다.

3. 「두모」의 語源을 파악하기 위하여 原始基本語 중 「두」의 t音系와 「모」의 m音系를 분석한 결과, 「두모」는 山·畝·태양·따뜻함이란 뜻과 물과 관련된 단어의 합성으로 “산이 둘러쳐 바람을 막아 주고 用水를 공급해 주는 하천이 흐르는 따뜻한 공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추된다. 언어학 및 지리학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두모」는 圓·四圍·崖地 혹은 신성한 토지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예맥족의 地形順化와 氣候順化의 產物인 背山臨水の 盆地立地는 결과적으로 「따뜻한 남쪽 땅」으로 요약되는 한민족의 原型的 思考觀念으로 뿌리를 내려 「두모」라는 특유의 立地術을 잉태하였다.

4. 이른바 취락의 두모式 立地術은 고대민족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가 큐슈·나라·교토에도 적용된 것 같다.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유형의 도읍지로는 奈良분지의 明日香·平城京과 京都분지의 長岡京·平安京 등을 꼽을 수 있다. 두모계 지명의 분포가 한반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주와 일본에도 분포한다는 사실은 「두모」가 東夷族에게 있어 마을을 만들고 도읍지를 정할만한 신성한 땅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註

- 1) 東幕이 두모와 동일한 지명이란 사실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동막리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豆毛萬里)東幕里, 즉 音讀이 유사한 한자로 바뀐 것으로 알 수 있다(川崎, 1935). 이같은 현상은 적어도 조선왕조 초기 이전에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된다(남영우, 1996).
- 2) 본 연구에서 참조한 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즉, 한국문헌에는 帝王韻紀, 東國史略, 三國遺事, 增補文獻備考, 大東輿地圖, 海東地圖, 廣州全圖, 舊韓末韓半島地形圖, 일본문헌에는 古書記, 續日書紀, 新撰姓氏錄, 日本書記, 和名抄, 出雲國風土記, 그리고 중국문헌에는 梁書, 魏志, 魏書 등이다.
- 3) 이것을 여섯 촌장의 출생지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6명의 촌장이 하늘에서 산으로 내려 온 것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출생했다는 地母神의 관념에서 연유한 것으로, 그들의 출생지의 차이를 암시한다는 것이다(張長植, 1995, pp.145~146).
- 4) 한글학회(1985)의 한국지명총람(경기편: 상)에는 「두미」로 수록되어 있으나, 현지답사 결과 주민들은 지형도상에 주기된 「두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 5) 山의 중세어 「뫼」는 모·모이·모로 >뫼 >매의 음운변천과정에서 연유된 것이며, 물[水]을 의미하는 「뫼」역시 m音系의 파생어이다. 『鷄林類事』에 의하면, “水曰每”라 하였으므로 적어도 중세 초기까지는 물을 뫼(moj)라고 한 것 같다. 따라서 산과 물이 모두 「뫼」의 m音系에서 유래한 어휘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물, 즉 하천의 근원이 산에 있으므로 그것들을 모두 뫼라고 일컬었던 모양이다.
- 6)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두모계 지명 중 취락명으로 붙여진 것의 약 8할 정도가 南向이거나 東向의 분지로 구성되어 있다. 방위별로 보면, 남쪽이 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동쪽 20%, 북쪽 15%, 서쪽 6%의 순이다.

文獻

- 김원룡, 1976, 한국문화의 기원, 탐구당.
- 김정배, 1973, 한국 민족문화의 기원, 고대출판부.
- 남영우, 1996, “古地名 「두모」研究”, 地理教育論集, 36, 116~125.
- 盧重國, 1987, “백제 국가형성과정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32, 1~8.
- 都守熙, 1991, “百濟의 國號에 관한 몇 問題”, 百濟研究, 22, 27~51.
- , 1994, “漢城時代 百濟의 建國과 國號 및 初期의 王名”, 百濟論叢, 4, 13~32.
- 朴賢淑, 1993, “백제 擔魯制의 실시와 그 성격”, 송갑호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615~633.
- 배우리, 1992, “땅이름속의 우리말: 한가람(2)”, 땅이름, 14, 18~22.
- 송기호, 1989, “발해사 연구의 문제점”, 韓國上古史, 民音社, 275~284.
- 안옥규, 1989, 어원사전, 동북조선 민족교육출판사, 延邊.
- 李炳銑, 1988, 韓國古代國名地名研究, 亞細亞文化社.
- 李種旭, 1989, “백제 국가형성사 연구의 동향”, 韓國上古史, 民音社, 212~228.
- 李 燦·楊普景, 1995, 서울의 옛 地圖, 서울학 연구소.
- 張長植, 1995, 韓國의 風水說話研究, 민속원.
- 池憲英, 1942, “朝鮮地名의 特性”, 朝光, 8(9), 朝光社, 196~211.
- 千素英, 1990, “고대 고유명사 借音表記研究”, 蘭汀남광우박사 기념집, 한국어문교육학회편, 630~644.
- 한글학회, 1985, 한국지명총람(경기편:상).
- 鏡味明克, 1964, 日本の地名, 角川書店, 東京.
- 光岡雅彦, 1982, 韓國古地名의 謎, 學生社, 東京.
- 吉崎正松, 1988, 都道府縣名と國名の起源, 古今書院, 東京.
- 金澤庄三郎, 1978, 日鮮同祖論, 成甲書房, 東京.
- 今西龍, 1912, “百濟國都漢山考”, 史學雜誌, 23(1), 58~71.
- 金思燁, 1979 a, 記紀萬葉の朝鮮語, 六興出版, 東京.
- , 1979 b, “古代朝鮮語と日本語”, 古代日本と朝鮮文化, プレジデント社, 東京.
- 楠原佑介 等, 1981, 古代地名語源辭典, 東京堂出版, 東京.
- 柳田國男, 1937, 地名の研究, 古今書院, 東京.
- 林雅子 譯, 1996, 中國姓氏, 第一書房, 東京.
- 本間信治, 1976, 日本古代地名의 謎, 新人物往來社, 東京.
- 松村瞭, 1930, “地名と人種名”, 地理學評論, 5(7), 1

- ~6.
辛兌鉉, 1940, “朝鮮姓氏の起源”, 朝鮮, 297, 56~63.
梶村大彬, 1978, 地理名稱の表現序説, 古今書院, 東京.
——, 1992, 世界の市町村名稱, 古今書院, 東京.
千寛宇, 1977, 韓國上古史の争點, 學生社, 東京.
千葉德爾, 1994, 新地名の研究, 古今書院, 東京.
川崎繁太郎, 1935, “朝鮮地名の變遷について”, 朝鮮, 246, 21~31.
Burrill, M.F., 1956, Toponymic Generics, *Names*, 4, 129~137.

- Gelling, M., 1976, The evidence of place-names, *Medieval Settlement: Continuity and Change*, Edward Arnold, London, 200~211.
Jordan, T.G. and Rowntree, L., 1979, *The Human Mosaic*, Harper & Row, New York.
Pine, L.G., 1965, *The Story of Surnames*, David & Charles, Newton Abbot.
Potter, S., 1950, *Our Language*, William Clowes & Sons, London.